



잭슨홀 회의 다음은?

8월 25일 잭슨홀 회의 파월의장 기조회의 연설은 예상대로 시장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음. 오히려 서두에서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할 위치라는 표현으로 예상보다 dovish한 스탠스로 연설 시작.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두는 7월 FOMC와 크게 다르지 않은 스탠스 유지

잭슨홀 회의를 바라보는 기존 시장의 우려는 통화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언급할 가능성이었으나, 그런 내용은 부재했음. 시장 예상보다 우호적이었던 부분은 중립금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 일각에서는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 중립금리 상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평균적인 정책금리 상향에 따른 주식시장의 구조적 부담을 우려했음. 연설에서는 '중립금리를 확실하게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얼마나 제약적인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 한편 인플레 목표 상향에 따른 구조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기대하던 시각도 있었는데, 중립금리와 함께 논쟁이 있었던 2% 인플레 목표에 대해서도 변동 없다는 입장 고수

잭슨홀 회의 연설 이후 시장은 11월 금리 인상 기대를 추가 반영, 이후 내년도 금리 인하 시작 시점에 대한 기대는 더 미뤄짐. 높은 수준의 GDPNow 등 데이터로 볼 때 미국 경기가 아직 물가 압력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게 컨센서스. 정책 기대를 녹이며 미국 2년 금리는 전일대비 6bp 상승한 5.08% 기록, 전고점('22년 3월) 돌파하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하며 금리 우려 재점화

9월 FOMC까지 추가 인상 기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변동성 나타날 가능성. 9월 FOMC의 SEP 및 점도표를 해석하면서 11월 인상 여부를 상당 부분 녹여낼 것. 다만 추가 인상 현실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능성 낮다는 생각. 소비 동향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생각인데 지난주 서비스 PMI 부진에 이어 8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는 예비치 대비 하락(71.2→69.5). 29일 발표될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도 전월치(117.0) 대비 낮은 컨센서스(116.2) 형성 중. 이번주 30일 발표되는 PCE(개인소비지출) 발표도 함께 주목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